

군산시의회,尹 대통령 하야 촉구

“이번 비상계엄, 자유·헌정질서 무너뜨린 행위… 삼권분립 원칙 깨트린 비민주적 작태”

군산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히 촉구했다.

4일 군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날(3일) 오후 10시 27분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밝히고, 같은날 저녁 11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중복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며, 국인을 불모로 삼아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트린 비민주적인 작태였다”고 밝혔다.

이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국민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떨어야했고, 수십년간 힘들게 쌓아 올린 국가의 신용과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고도 했다.

군산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의결 확정권,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의결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하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무능력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오판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선포야 할 비상계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 국가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리고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윤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두세울 것”이라고도 했다.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해 국가의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어떤 세력이든 끝까지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 ‘우수 지자체’

전국 159개 지자체 중... 3년 연속 A등급 수상

익산시가 지역 먹거리 체계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특히 2020년 D등급에서 2022년 2년 만에 3단계 상승한 A등급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A등급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는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추진한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정책 활성화 정도와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심사한다. 올해는 전국 1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5대 과제 14개 평가지표에 대한 서면·현장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 익산시는 먹거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를 추진한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익산시는 로컬푸드의 대내외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먹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익산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서 ‘우수상’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군산시가 세종시 컨벤션센터서 개최한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시상식에서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사업은 지자체별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이다.

2020년 처음 시행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산을 촉진하고 지역산 먹거리(로컬푸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진행된 이번 사업은 로컬푸드직매장 및 공공급식 분야의 로컬푸드 생산소비 체계의 지자체 실천 노력과 확산 정도를 지수화해 평가한다.

군산시는 민관협의체인 군산 먹거리



위원회를 통해 시·교육청·소비자·생산자·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분과별 위원회 개최와 먹거리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해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1년 최우수상,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우수상, 2024년 우수상을 수상하여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SRT 어워드 최고의 여행지 선정

4년 연속 수상... 백제 유산 기반 역사문화·정원 관광 등 각광



익산시가 SRT 여행객과 전문가가 뽑은 최고 여행지로 선정되며 관광 도시의 매력을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SRT 매거진이 매년 국내

최고 여행지를 뽑는 ‘SRT 어워드’에서 대상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SRT 어워드’는 독자 1만 2,060명의

설문조사와 여행작가, 여행기자, 에디터 등 전문가 평가를 비롯해 방문 관광객 데이터베이스(DB) 분석,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평가해 10개 도시를 선정했다.

익산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백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지로 각광받으며, SRT어워드와 피너클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등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4 SRT 어워드에서 수상하게 되며 관광도시 익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알리게 돼 뜻깊다”며 “내년에도 더욱 이색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의 관심과 방문을 끌어내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운영

3개 기관 추가 지정

군산시는 어린이 긴급보육 수요 증가에 발맞춰 통합반 시간제 보육 서비스 기관 3개소를 추가지정해 12월 2일부터 확대 운영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부모가 병원 이용, 취

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에 시간 단위로 자녀를 맡기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시간제 보육 독립반 3개소 3개 반과 통합반 6개소 11개 반을 운영했지만, 12월에 통합반 3개소 3개 반을 추가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12개소 14개 반으로 확대됐다.

독립반과 통합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유아(6개월~36개월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육료는 시간당 2,000원으로 월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누리집 및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극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극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